



소개

더 컬렉터블 VI

워치메이킹 황금기의 유산:

런던에서 공개되는 박물관 소장급 타임피스 12 점

주요 정보:

- **더 컬렉터블:** 6 월 15 일부터 7 월 18 일까지 런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공개 및 판매하는 인기 컬렉션 타임피스
- **워치메이킹의 ‘황금기’ :** 20 세기 초반부터 2000 년대 초반까지 제작된 7 점의 진귀한 리베르소 모델과 5 점의 상징적인 모델로 엄선한 셀렉션
- **박물관 소장급 타임피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 내 자체 복원 워크숍의 시계 장인들이 세심하게 관리한 컬렉션

예거 르쿨트르는 더 컬렉터블의 여섯 번째 캡슐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엄선된 12 점의 박물관 소장급 타임피스는 6 월 15 일 런던에서 공개되며, 전 세계 수집가들에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번 컬렉션은 시계 애호가 및 수집가들이 모여드는 중심지인 런던에서 처음 선보이는 컬렉터블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컬렉션이 공개되는 6 월은 매년 봄부터 초여름까지 런던에서 전통적으로 권위 있는 사교, 문화, 스포츠 행사가 이어지며 전 세계 방문객이 모여드는 더 시즌(The Season)과도 맞물립니다. 이번 캡슐 컬렉션은 1931 년부터 2003 년까지 제작된 진귀한 리베르소 7 점과 20 세기 중반 워치메이킹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델 5 점으로 구성됩니다.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



더 컬렉터블은 워치메이킹의 황금기에 탄생한 타임피스들을 엄선해 복원하고 선보이는 예거 르쿨트르의 인하우스 프로그램입니다. 약 200 년에 걸친 메종의 창조적 유산을 기념하는 이번 컬렉션은 그 유구한 헤리티지를 조명합니다. 듀오플랜, 리베르소, 지오피직, 퓨처매틱, 메모박스 폴라리스 등 1920 년대 중반부터 1970 년대 초반까지 제작된 17 점의 상징적인 모델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전 세계에 익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으로 공개되는 이 타임피스들은 수집가들에게 각 시계가 지닌 역사와 이야기를 이어갈 특별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헤리티지를 향한 이러한 헌신은 매뉴팩처 내 자체 복원 워크숍이 있기에 가능하며, 이와 같은 전문 시설을 갖춘 브랜드는 업계에서도 매우 드뭅니다. 이곳에서 10 명의 마스터 워치메이커는 오리지널 모델의 특성과 파티나를 보존하는 동시에, 무브먼트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품은 수작업으로 제작하거나 헤리티지 아카이브에 보관된 희소한 부품을 사용하여 각 타임피스를 정교하게 복원합니다. 박물관 수준의 엄격한 복원과 인증을 거친 각각의 타임피스는 이제 발레드주에서 시작된 저마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 상징적인 리버서블 시계

여섯 번째 더 컬렉터블 캡슐 컬렉션에서 선보이는 7 점의 리베르소 모델은 1931 년 출시부터 21 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리베르소가 발전해 온 과정을 보여줍니다. 리베르소는 원래 폴로 경기의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스포츠 시계였지만, 출시 직후부터 다양한 분야의 트렌드세터들에게 사랑받으며 특유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르데코 디자인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930 년대 르쿨트르 앤 씨(LeCoultre & Cie)는 당시 시계 업계를 주도하던 실버 및 화이트 다이얼과 대비되는 블랙 다이얼을 선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블랙 다이얼은 1934 년 예가와 르쿨트르의 협업으로 탄생한 최초의 제품 카탈로그인 *스페셜리테/오를로제(Spécialités Horlogères)*에서 '미래의 다이얼'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초기 리베르소 모델 중 일부에만 적용된 이 다이얼은 뛰어난 가독성과 모던한 디자인을 강조하며, 이번 캡슐 컬렉션에 포함된 리베르소 1931, 리베르소 1931 담, 닥터 리베르소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리베르소 1931 은 레일웨이 미닛 트랙과 길게 뻗은 사다리꼴 인덱스를 갖춘 대담한 블랙 다이얼이 특징입니다. 예거 르쿨트르가 1933 년 케이스 형태에 맞춘 자체 무브먼트를 개발하기 전,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도입했던 타반 칼리버 063 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제작한 블랙 송아지 가죽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스틸 케이스에 타반 칼리버 051 이 탑재된 **리베르소 1931** 담은 리베르소가 다양한 착용자를 위해 얼마나 빠르게 진화했는지 보여줍니다. 동일한 디자인 코드를 바탕으로 남성 모델의 미닛 트랙 대신 괄호 형태의 코너 마커를 배치하고, 사다리꼴 인덱스를 갖춘 정교한 아르데코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오늘날 리베르소 원 컬렉션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 또한 수작업으로 제작한 블랙 송아지 가죽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스틸 케이스에 매뉴팩처 칼리버 411 이 탑재된 **1938 리베르소 센트럴** **세컨즈**는 기능적으로 한 단계 발전한 리베르소의 모습을 보여주며, 훗날 **닥터 리베르소**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5 초 간격의 센트럴 세컨즈 디스플레이는 길게 뻗은 아워 마커와 정렬되어 뛰어난 가독성을 제공하며,



맥박수를 더욱 정확하고 손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당시 의사들의 실용적인 도구였던 이 시계는 "닥터 리베르소"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제작한 블랙 송아지 가죽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1941 년에 제작된 투톤 리베르소는 스틸과 18K 옐로 골드(750/1000)를 결합해 골드의 우아함을



유지하면서도 내구성을 강화한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18K 옐로 골드(750/1000) 케이스에는 프랑스 골드의 상징인 독수리 머리 홀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매뉴팩처 칼리버 438 로 구동되며, 6 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1933 년에 처음 도입된 이 구성은 초기

리베르소 디자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특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크림 컬러 스티치 장식의 수작업으로 제작한 라이트 브라운 송아지 가죽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단 200 피스만 제작된 **1972 리베르소 코르보**는 리베르소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전후 시대의 실용주의와 쿼츠 위기까지 속에서도 조르지오 코르보(Giorgio Corvo)는 리베르소 디자인이 지닌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1972 년 메종에 남아 있던 마지막



리베르소 케이스 200 개를 인수해 기계식 칼리버 840 을 탑재했고, 이 시계들은 한 달 만에 이탈리아 고객들에게 모두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베르소 코르보는 리베르소를 향한 열정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하면서 컬렉션의 부활을 이끌었습니다. 스틸 케이스에 실버 다이얼을 갖춘 이 모델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40 으로 구동됩니다. 수작업으로 제작한 블랙 송아지 가죽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케이스에 담긴 **리베르소 쉰 문**은 2000 년에 선보인 모델로, 1990 년대에



다시금 피어난 기계식 시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합니다. 당시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를 위한 차세대 컴플리케이션 칼리버를 도입했으며, 기계적 정교함을 감상할 수 있도록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백을 장착했습니다. 1999 년에 개발된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23 을 탑재한 이 모델은 기술적인 정교함과 우아한 천체 인디케이터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블랙 다이얼은

회전하는 24 시간 디스크를 통해 태양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6 시 방향의 문페이즈 디스플레이와 11 시 방향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더해져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레일웨이 미닛 트랙과 아라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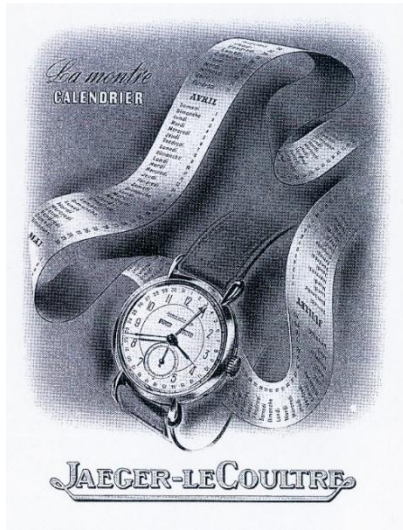
숫자로 구성된 다이얼은 가독성과 세련미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며,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독특한 피스톨 브리지를 갖춘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폴로 부츠 제작사인 까사 파글리아노(Casa Fagliano)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한 블랙 코도반 가죽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리베르소 아르데코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의 도입과 함께 컬렉션에 스키텔론 기법이라는 새로운 장식 공예의 표현 방식을 더한 모델입니다. 1995 년에 처음 선보인 이 모델의 2003 년 버전은 칼리버 822 를 정교하게 수작업으로 장식한 뒤 스키텔론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여, 우아한 아르데코 미학과의 조화가 돋보입니다. 오픈 케이스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칼리버는 블루 스크루와 정교한 발리콘 모티프로 장식된 수공 인그레이빙 브리지가 특징입니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케이스 안에 담긴 새면 톤의 솔리드 실버 다이얼은 핸드 기요세 패턴과 수직 브러싱이 대비를 이루고, 도핀 핸즈와 사다리꼴 형태의 아플리케 인덱스가 조화를 이룹니다. 아카이브 기록에 따르면 매달 제작된 수량은 10 피스를 넘지 않았으며, 이는 각 타임피스에 요구된 높은 수준의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폴로 부츠 제작사인 까사 파글리아노(Casa Fagliano)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한 블랙 코도반 가죽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리베르소 7 점과 함께 선보이는 5 점의 시계는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에 포함된 17 개 모델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캡슐에서 추가로 선보이는 5 점의 타임피스는 예거 르쿨트르는 물론 20 세기 워치메이킹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메종의 개척 정신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트리플 캘린더: 컴플리케이션의 기준



예거 르쿨트르는 1942 년, 빠르게 성장하던 손목시계 산업을 위해 날짜, 요일, 월을 표시하는 트리플 캘린더(컴플리트 캘린더) 칼리버를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실용적인 디자인을 우아하게 구현한 이 컴플리케이션은 세련된 취향과 탁월한 안목을 지닌 이들을 위해 탄생했으며,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자사 시계뿐 아니라 당대 저명한 워치메이커들에게도 이 칼리버를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 트리플 캘린더는 20 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컴플리케이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40 년대 초반에 등장한 예거 르쿨트르의 트리플 캘린더는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컴플리케이션을 상징하며, 클래식한 품격과 실용적인 기능성을 조화롭게 결합했습니다.

트리플 캘린더 광고, 1944 년

트리플 캘린더는 시리즈 생산되는 손목시계를 위해 개발된 최초의 컴플리케이션으로, 예거 르쿨트르는 물론 워치메이킹 역사에도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문페이스를 갖춘 트리플 캘린더는 1946 년에 제작된 진귀한 작품입니다.

파리의 예거 아틀리에에서 제작된 35mm 크기의 18K 옐로 골드(750/1000) 케이스에는 에드몽 예거(Edmond Jaeger) 홀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프랑스 시장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모델로, 당시 군용 시계의 정신을 반영하여 뛰어난 가독성을 갖춘 다이얼이 특징이며,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494 로 구동되며, 캘린더 인디케이터와 스몰 세컨즈 카운터에 통합된 문페이스 디스플레이가 조화를 이룹니다. 수작업으로 제작한 그레인 마감의 블루 송아지 가죽 스트랩이 장착돼 있습니다.

뛰어난 가독성을 갖춘 다이얼이 특징이며,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494 로 구동되며, 캘린더 인디케이터와 스몰 세컨즈 카운터에 통합된 문페이스 디스플레이가 조화를 이룹니다. 수작업으로 제작한 그레인 마감의 블루 송아지 가죽 스트랩이 장착돼 있습니다.



듀오플랜: 손목 위에 펼쳐진 혁신



예거와 르쿨트르의 파트너십 초기에 탄생한 듀오플랜은 업계에 진정한 혁신을 가져온 모델이었습니다. 2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듀오플랜 칼리버는 두 회사 모두에 새로운 창조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1925 년에 발명된 직사각형 형태의 2 단 구조는 더 크고 견고한 부품들을 컴팩트한 공간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해 획기적인 수준의 소형화를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특히 여성용 시계 디자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듀오플랜은 르쿨트르 & 씨(LeCoultre & Cie)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이를

기점으로 무브먼트 및 부품 제조업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진정한 시계 매뉴팩처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듀오플랜 광고, 기소(GHISO S.A), 부에노스아이레스, 1932 년

정밀성을 유지하면서도 극도의 소형화를 실현해 낸 1956 년의 **듀오플랜 쿨리상뜨** 시크릿 위치는 예거 르쿨트르의 기술적 독창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18K 옐로 골드(750/1000) 브레이슬릿에 장착된 슬라이딩 장치를 통해 다이얼을 원하는 대로 감추거나 드러낼 수 있어 타임피스만의



비밀스러운 매력이 더욱 돋보입니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클루 드 파리(Clous de Paris) 장식을 연상시키는 물결 모양의 질감을 살린 패턴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메모박스: 제 2 의 기억

1958 년, 예거 르쿨트르는 창립 125 주년을 기념해 메종의 전문성과 혁신 정신을 강조하는 세 가지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메모박스 파킹은 전설적인 메모박스를 새롭게 재해석한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블루 및 화이트 컬러의 픽토그램으로 구성된 특허 받은 다이얼은 기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주차 허용 시간이 끝나기 전에 알람으로 알려주어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1958 메모북스 파킹은 우아한 18K 핑크 골드(750/1000) 케이스에 실용적인 기능을 결합해, 공존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가지 특성을 하나의 시계에 담아냈습니다. 매뉴얼 와인딩 방식의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14로 구동되는 이 모델은 알람 기능 덕분에 세련된 드레스 워치이자 일상에 유용한 동반자로 거듭납니다. 케이스에는 에드몽 예거 홀마크(EJ)가 새겨져 있어, 메종의 아틀리에가 자랑하는 파리의 장인 정신을 증명합니다. 수작업으로 제작된 브라운 송아지 가죽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1969년에 제작된 스틸 소재의 **메모북스 오토매틱 캘린더**(레퍼런스 E855)는 혁신적인 기술과 강렬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입니다. 당시 예거 르쿨트르는 손목시계 제작 분야의 두 가지 핵심 기술인 알람 컴플리케이션과 오토매틱 와인딩을 결합했습니다. 37mm 모델은 3시 방향에 날짜 창이 있는 우아한 블랙 다이얼을 갖추고 있으며, 셀프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5로 구동됩니다.



게 프레르(Gay Frères)에서 제작한 5 열 브레이슬릿은 상징적인 샤무아 디테일이 새겨져 시계의 독보적인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오리지널 게 프레르 스틸 브레이슬릿과 블랙 페인티드 다이얼 조합으로 완성된 제품으로, 메모북스 오토매틱 모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시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게 프레르는 세계 유수의 워치메이커들에게 브레이슬릿을 공급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스위스의 전문 제조사입니다. 수작업으로 제작된 블랙 송아지 가죽 스트랩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지오매틱: 크로노미터 칼리버



전설적인 지오피직에서 영감을 받은 지오매틱은 당대 발레드주의 워치메이커들이 구현할 수 있었던 최고의 기술력을 집약한 모델입니다. 지오매틱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오토매틱 시계로 개발되었습니다. 1961 년에 출시 당시 뛰어난 정밀성으로 진정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무브먼트와 화려한 다이얼을 통해 최첨단 기술과 절제된 우아함을 조화롭게 구현했습니다.



1970 년에 단 200 피스만 생산된 진귀한 **지오매틱 E560** 은 쿠션형 18K 옐로 골드(750/1000)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크로노미터 인증을 비롯해 360 시간의 테스트를 거친 오토매틱 칼리버 K883S 로 구동되며, 정확한 시간 설정을 위한 스톱 세컨즈 메커니즘과 즉각적인 점핑 데이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구조는 지오매틱 라인이 추구하는 정확성을 잘 보여줍니다. 수작업으로 제작된 토프 송아지 가죽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에서 선보이는 모든 타임피스에는 예거 르쿨트르 아카이브의 발췌본과 *더 컬렉터블* 북이 제공됩니다. 또한 메탈 브레이슬릿 모델을 제외한 모든 시계에는 각 모델의 스타일과 어울리도록 새롭게 제작된 수공예 가죽 스트랩이 포함됩니다. 가능한 경우 해당 타임피스의 오리지널 워치 박스와 보증서, 오리지널 스트랩 또는 브레이슬릿도 함께 구성됩니다.

더 컬렉터블의 여섯 번째 캡슐 컬렉션을 선보이는 런던

더 컬렉터블의 여섯 번째 캡슐 컬렉션은 6 월 15 일 런던 올드 본드 스트리트 13 번지(13 Old Bond Street, London W1)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 런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공개되며, 7 월 18 일까지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플래그십 스토어의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6 시까지입니다. 더 컬렉터블 타임피스는 6 월 15 일부터 [jaeger-lecoultre.com](https://www.jaeger-lecoultre.com) 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구매하실 수 있으며, 컬렉션 공개 기간 동안 런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더 컬렉터블 북 또한 [jaeger-lecoultre.com](https://www.jaeger-lecoultre.com) 과 예거 르쿨트르의 모든 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는 190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180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들이 탄생합니다.